



전국병원봉사연합회는 연우와 함께, 정읍시와 함께 9월 5일 정읍 내장사에서 무료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내장선원에서 한방진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병 불편 자비나눔 후 의료봉사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이 어르신들의 진료 현황을 돌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어보고 있다.



의료봉사와 함께 미용봉사가 경내에서 이뤄졌다.

# “건강하세요” 한마음 따듯 의료봉사



이날 의료봉사에 불교의료지원단 연우와 함께 진료차량이 지원됐다. 의사가 어르신에게 지금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아따 어찌 지금 왔는가? 시방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늙은이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쓰겠는가? 디저플루만.”

오랜 기다림 끝에 터져 나온 원망과 안도의 핀잔이 쏟아졌다. 9월 4일 전북 정읍 내장사에는 1000여 어르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서 있었다. 전국병원봉사연합회(회장 유재환, 병불련)는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아해종단장 구자선), 정읍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와 함께 정읍 내장사(주지 지선)에서 주최하는 ‘자비나눔 효(孝) 의료봉사 행사’를 진행했다. 진료 과목은 내과, 통방의학과, 한방, 치과, 발마사지, 혈액 및 심전도 검사, 이마음 등이었다. 무료 의료봉사 소식에 전해지면서 지역 내 어르신 1000여 명이 사전 예약을 하고, 행사 당일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내장사를 찾았다. “거기- 내가 먼저 왔어. 그렇고름 쓰면 되겠는가!”라며 성을 냈다. 모양은 좋지 않지만 그 안은 전쟁이었다. 서울에서 의료봉사 팀들이 온다는 소식이 새벽부터 기다리던 어르신들의 망연한 짜증이었다. 10시부터 진료를 시작한다면 봉사팀은 11시가 훌쩍 넘어야 도착했다. 70-80대 어르신들이 3시간 여를 땀방에 서서 기다리지만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추석 전 밤초 차량으로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새벽부터 달려온 봉사팀은 잘못된 것도 없이 최후한 마음에 짐은 생각도 못하고 봉사를 시작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작된 곳은 한방 의학과와 발마사지였다.

“어이-! 내가 처음이여. 하하하. 그래 그래, 맞고 갈게. 기다려. 같이 가자구!”

첫 진료를 받는 어르신은 침 맛을 준비를 하면서 전화로 자랑했다. 있던 병도 딱 식 듯했다. 진료는 시작했다. “머리가 먹먹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랫배가 아프기도 하고, 무릎은 시리고 안아픈데가 없어요.”

“네. 어르신, 오늘은 한방치료 받고 다음에 아프면 정형외과로 가세요. 오늘 드리는 약은 아플 때 한 알만 드세요. 굉장히 좋은 약이니깐 드셔보세요. 이 약이 잘 들면 다음에 병원에 가서서 이 약을 보여주세요.” “땀박은 약하긴 한데 부정맥은 없으시네요. 혹시 피곤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간이나 피검사를 좀 받아보셔야겠어요.”

진료소에서 오가는 대화는 끊임이 없었다. 진료소로 쓰인 내

유명했다. 그동안 지역민을 위해 회합하는 일이 드물었다. 지선 스님은 내장사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를 서원하면서 의료봉사 행사를 기획했다. 스님은 “그동안 내장사는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있었다. 내장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 하고, 지역민들에게 관광사찰이 아닌 효행 수행도량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의료 봉사를 통해 박물관이나 관광지로의 내장사를 넘어 지역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봉사단체에 “대의왕 부처님의 화신들과 같은 분들”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효(孝)’라는 테마에 맞게 정읍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동참했다. 정읍시 내 파라미타를 운영하는 호남·제일·정읍·정주·학산·배영·정읍여고 등 7개 학교에서 150여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지원했다. 학생들은 특별한 역할을 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해당 진료소로 안내하고, 말동무도 해 드렸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약도 직접 타다드리는 등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모시는 것 이상으로 친절했다. 이소라 학생(정주고1)은 “어르신들이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어르신과 말동무도 해드리고, 안내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재환 회장은 “더운 날씨에 부족한 준비에도 모두 열심히 해주었다.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다”며 “지역 사찰에서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계기가 됐다. 일회성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료는 286명 접수, 443건 진료, 57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40여 명의 의료진들은 5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가뭄해냈다. 이날 하루 내장사는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병원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의왕 부처님이었다. 어르신들의 기다림은 조금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명의 대의왕 부처님을 만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 이상언 기자

## 어르신 1000여명 진료 “아따 시원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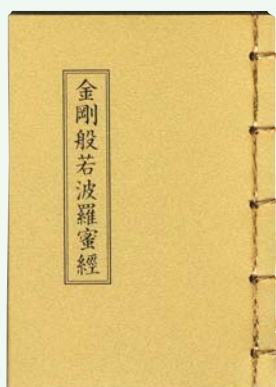
## “지역사회 위해 내장사를 효행 도량으로”

장사 내장선원과 요사채 등에는 의사 한 두 명에 환자가 가득했다. 봉사자들에게는 지치고 힘들어할 여유도 없었다. 어르신 한 분이라도 정성껏 진료를 하기 위해 들고 또 들고, 설명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이어갔다. 정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와 “건강하세요”라는 따뜻한 말을 주고 받았다. 봉사팀이 구슬땀을 흘리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가자 원성은 차차 사그라 들었다. “아따 시원하네. 감사합니다”라며 자리를 뜨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는 안정돼 갔다. 긴 줄은 진료가 3시간 정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나서야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봉사자들을 위한 간식은 말라가고 있었다.

육흥기(79) 어르신은 “허리 진료를 받고 내시경도 받았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다.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런 행사를 주최한 내장사는 성지이기 전에 단풍 관광지로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전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합니다.

실물크기(소) 3.5 x 5cm (중) 5 x 7cm

복상불소영가장량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 x 10mm x 12mm 55,000원 10mm x 10mm x 12mm 65,000원 12mm x 10mm x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은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술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수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온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개발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험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온열복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이렛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에게는 3-4일 먼저 선체혈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질 후 증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 일일요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